

#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 변형 실태 및 착의 만족도 비교 연구

이 연 순·김 혜 정\*·김 경 아<sup>\*\*\*</sup>  
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교수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강사<sup>\*\*\*</sup>

## A Study on Wearing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Uniform's Reform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Girl Students

Youn-Soon Lee · Hea-Jung Kim\* · Kyung-A Kim<sup>\*\*\*</sup>

Prof., School of Textiles, Yeungnam University  
Graduate Student,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Lecturer, School of Textiles, Yeungnam University<sup>\*\*\*</sup>  
(2009. 3. 25. 접수; 2009. 5. 5. 수정; 2009. 5. 14.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pparel Industries producing the school uniform with the information on manufacturing the school uniform, and the students with the information of reasonable life of garments. Differences of reforming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the school uniform have been research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764 middle and high school girl students living in Daegu. Except for psychological aspect of wearing the uniform, most of satisfaction of wearing the uniform in the survey has been studied as lower ones. in line with these, overall improvement of aesthetic, economic, handling, class symbolic, movable aspects are requested to meet the needs of the students. A majority response of reforming the school the uniform once have come from middle school students, and another response of reforming the uniform twice coming from high school students are as follows : fitness of the uniform, trend, movability, expression of personality, and those of high school students are fitness of the uniform, expression of personality, trend, movability. Opportunities to have an education on how to wear school uniform appropriately have not been offered to students, and a number of the students in the survey have replied that they need to have adequate school uniform wearing education.

**Key Words:** Wearing condition(착의 실태), Wearing satisfaction(착의 만족도), School uniform's reform(교복 변형), Middle and high school girl students(여중고생)

---

Corresponding author ; Kyung-A Kim

Tel. +82-53-810-2799, Fax. +82-53-810-4684

E-mail : kyunga@ynu.ac.kr

## I. 서론

근래에는 패션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교복의 디자인이나 색상 등이 종전보다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욕구나 감각 추구 경향이 다양화되므로 과거의 획일적인 교복 형태를 지양하고 패션화된 디자인과 소재를 선호하면서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상황이 뚜렷하다.<sup>1)</sup> 이에 따라 교복의 만족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중생의 성장 양상은 비교적 균형 잡힌 성장률을 보이는 아동기나, 어느 정도 성인체형을 이룬 여고생과는 달리 불균형적이면서도 급격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부위별로 다양한 치수 변화가 생기며 개인차도 현저하다. 그러나 현재 기성 교복의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신체치수나 성장에 따른 체형변화의 차별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치수 체계를 정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학생들은 교복 변형이라는 행동을 통해 교복의 착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복행동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연구나 여중고생 집단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만족도 및 교복 변형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성장 속도에 따른 신체 변화나 교복에 대한 경험의 차이를 반영하여 여중생 집단과 여고생 집단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에 대한 전반적인 착의 현황, 교복 변형 실태 및 만족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교복 제작에 참여하는 어패럴 업체에는 교복 제작시 고려되어야 할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합리적 의생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II. 연구 방법과 절차

### 1. 조사 대상 및 기간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지역 안배를 위해서 북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의 중·고등학교를 각 1개교씩 선정하여 중학교 540부, 고등학교 360부 총 9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는 2007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한 136부를 제외한 총 76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 작성은 예비조사를 행한 후에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기초적 사항 3문항, 교복의 착의 전반에 관한 11문항, 만족도 21문항, 교복변형에 관한 20문항, 의생활 교육에 관한 2문항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복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는 심미적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관리적 만족도, 신분상징적 만족도, 심리적 만족도, 동작적합 만족도, 신체적합 만족도를 각각 3문항씩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마다 빈도, 백분율 및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t$ 검정과  $\chi^2$ 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유의차를 검정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교복 착의 현황

교복 착의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교복 보유량, 구입 형태, 구입시 영향을 받은 사람,



<그림 1> 조사 대상 학교의 교복 형태 (중학교/고등학교)

구입시 고려 요인, 구입시 소요 비용, 치수 선택 및 치수 선택시 고려 부위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의 교복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하절기용 교복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상의는 반팔 소매의 블라우스를 주 아이템으로 정하였고, 하의는 스커트로 제한하였다. 그 외 칼라 형태나 스커트 실루엣 형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는 제한하지 않았다.

1) 교복 보유량

학교 유형에 따른 교복 블라우스 및 스커트 보유량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하의의 보유량을 비교해 보면, 블라우스 보유량은 전반적으로 2벌, 스커트 보유량은 1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상의(블라우스)는 흰색 등 밝은 색이

많은 반면에 하의(스커트)는 진한 색이 많으며, 하의에 비해서 상의가 땀 흡수나 오염 등으로 인해 잦은 세탁이 요구되므로 여벌의 의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의(블라우스) 보유량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5$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벌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85.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에도 2벌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1벌만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도 12.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의(스커트) 보유량에 있어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5$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벌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91.0%), 중학생의 경우에도 1벌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

<표 1> 교복 블라우스 및 스커트 보유량

					N(%)
분류	벌수	중학생	고등학생	계	$\chi^2$
블라우스	1	57( 12.6)	21( 6.8)	78( 10.2)	11.706*
	2	344( 75.9)	266( 85.5)	610( 79.8)	
	3	38( 8.4)	19( 6.1)	57( 7.5)	
	4	11( 2.4)	3( 1.0)	14( 1.8)	
	5	3( 0.7)	2( 0.6)	5( 0.7)	
	계	453(100.0)	311(100.0)	764(100.0)	
스커트	1	386( 85.2)	283( 91.0)	669( 87.5)	6.407*
	2	65( 14.3)	28( 9.0)	93( 12.2)	
	3	2( 0.4)	0( 0.0)	2( 0.3)	
	계	453(100.0)	311(100.0)	764(100.0)	

\*  $p<.05$

이 85.2%로 가장 높았으나, 2별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도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교복 구입 형태

교복 구입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집단의 경우 브랜드 대리점에서 개별 구입이 70.7%로 가장 높았고, 교복 전문점에서 개별 구입이 26.6%로 그 다음이며, 나머지 구입 형태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2). 교복 구입 형태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의 교복시장 진출, 교복 전문브랜드 등장, 교복 브랜드들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교복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대리점 또는 교복 전문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브랜드 대리점에서 개별 구입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교에서 공동 구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관을 해야만 가능한데 실시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으며, 또한 물려 받기에 대한 인식 역시 아직 좋은 의미로 형성되지 않은 영향이라 생각되었다.

학교의 공동구매 방법은 대량 구매를 통해 구입하므로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선배들의 깨끗한 교복을 졸업시에 후배 재학생들에게 물려 주는 방법도 선배의 후배사랑 또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장려할 방법이라 생각된다.

## 3) 교복 구입시 영향을 받은 사람

교복 구입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2.0%, 본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한 경우는 31.0%, 친구나 선배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18.8%로 나타났다. 이는 김<sup>2)</sup>의 연구에서 교복 구입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어머니이고 다음 순위가 자신인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유형에 따른 교

<표 2> 교복 구입 형태

항목	중학생	고등학생	계	N(%)
백화점에서 개별 구입	5( 1.1)	3( 1.0)	8( 1.0)	6.242
브랜드 대리점에서 개별 구입	319( 70.4)	221( 71.1)	540( 70.7)	
교복 전문점에서 개별 구입	117( 25.8)	86( 27.7)	203( 26.6)	
물려 받음	9( 2.0)	1( 0.3)	10( 1.3)	
학교에서 공동 구매	1( 0.2)	0( 0.0)	1( 0.1)	
기타	2( 0.4)	0( 0.0)	2( 0.3)	
계	453(100.0)	311(100.0)	764(100.0)	

<표 3> 교복 구입시 영향을 받은 사람

항목	중학생	고등학생	계	N(%)
본인	116( 25.6)	121( 38.9)	237( 31.0)	26.040***
부모님	216( 47.7)	105( 33.8)	321( 42.0)	
형제 자매	20( 4.4)	4( 1.3)	24( 3.1)	
친구, 선배	79( 17.4)	65( 20.9)	144( 18.8)	
판매종사자	16( 3.5)	11( 3.5)	27( 3.5)	
기타	6( 1.3)	5( 1.6)	11( 1.4)	
계	453(100.0)	311(100.0)	764(100.0)	

\*\*\* $p<.001$

복 구입시의 영향 인물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여중생은 부모님 47.7%, 본인 25.6%, 친구나 선배 17.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고생은 본인 38.9%, 부모님 33.8%, 친구나 선배 20.9%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

이러한 결과는 교복 구입의 경험이 다소 적은 여중생은 본인이 입을 교복이지만 부모님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반면, 교복 구입 및 착용의 경험이 다소 많은 여고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교복 구입시 고려하는 요인

전체 집단의 경우, 교복 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착용시 맞음새가 7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이미지, 가격 순이었

다(표 4). 이는 김<sup>3)</sup>의 연구 결과 맞음새가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이라는 응답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구입시 고려하는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착용시 맞음새, 브랜드 이미지, 가격, 옷감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김<sup>3)</sup>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맞음새, 옷감의 질, 봉제 상태, 가격의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교복 구입 경향으로 볼 때 전문브랜드 교복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고, 이들은 옷감의 질이나 봉제 상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므로 고려 요인으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사료된다. 교복 구입시 고려하는 요인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여중생은 착용시 맞음새, 브랜드 이미지, 가격 순으로 나타났지만, 여고생은 착용시 맞음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옷감과 가격이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김<sup>4)</sup>의 연구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교

<표 4> 교복 구입시 고려하는 요인

항목	중학생	고등학생	계	N(%)
착용시 맞음새	312( 68.9)	253( 81.4)	565( 74.0)	24.192***
옷감	40( 8.8)	18( 5.8)	58( 7.6)	
봉제	2( 0.4)	0( 0)	2( 0.3)	
가격	42( 9.3)	18( 5.8)	60( 7.9)	
브랜드이미지	54( 11.9)	15( 4.8)	69( 9.0)	
기타	3( 0.7)	7( 2.3)	10( 1.3)	
계	453(100.0)	311(100.0)	764(100.0)	

\*\*\*  $p<.001$

<표 5> 교복 구입시 소요 비용

항목	중학생	고등학생	계	N(%)
10만원 이하	32( 7.1)	33( 10.6)	65( 8.5)	38.457***
10~15만원	110( 24.3)	123( 39.5)	233( 30.5)	
15~20만원	153( 33.8)	100( 32.2)	253( 33.1)	
20~25만원	123( 27.2)	37( 11.9)	160( 20.9)	
25만원 이상	35( 7.7)	18( 5.8)	53( 6.9)	
계	453(100.0)	311(100.0)	764(100.0)	

\*\*\*  $p<.001$

복 구입시의 정보원으로 친구와 TV광고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업체의 교복은 TV광고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모델로 삼아 광고 경쟁을 하므로 교복을 구입할 때 실용적인 면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여 교복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 교복 구입시 소요 비용

교복 구입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가 알아보기 위해 교복 구입시 소요 비용을 질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교복 구입시 소요 비용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여중생은 교복 구입시 15~20만원 33.8%, 20~25만원 27.2%, 10~15만원 24.3%의 순위로 응답하였고, 여고생은 10~15만원 39.5%, 15~20만원 32.2%의 순위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복 구입시 고려 요인에서 여중생은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하므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원하는 브랜드의 교복을 구입하는 반면, 여고생은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가격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판매되고 있는 여름 교복의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대기업인 L, S, I사의 경우 14만원에서 21만원, 중소기업인 S사의 경우는 13만원에서 17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고, 옷감의 종류나 가공 방법에 따라서도 가격의 차이가 현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6> 교복 구입시 치수 선택

항목	중학생	고등학생	계	N(%)
한 치수 작게	18( 4.0)	14( 4.5)	32( 4.2)	44.201***
신체크기와 같게	172( 38.0)	190( 61.1)	362( 47.4)	
한 치수 크게	236( 52.1)	99( 31.8)	335( 43.8)	
두 치수 크게	25( 5.5)	6( 1.9)	31( 4.1)	
기타	2( 0.4)	2( 6.6)	4( 0.5)	
계	453(100.0)	311(100.0)	764(100.0)	

\*\*\* $p<.001$

#### 6) 교복 구입시 치수 선택

교복 구입시 치수 선택 기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교복 구입시 치수 선택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여중생은 한 치수 크게가 52.1%로 가장 높고, 신체크기와 같게가 38.0%로 그 다음인데 비해서 여고생은 신체크기와 같게가 61.1%로 가장 높고, 한 치수 크게가 31.8%이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양 집단 모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체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된 고등학생은 신체크기와 같게 교복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으며, 중학생은 신체 성장을 고려하여 한 치수 크게 구입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중생은 교복 구입시 신체 성장을 고려하여 실제 치수보다 큰 사이즈의 교복을 선택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착용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반면, 여고생의 치수 선택은 슬림 라인(slim line)의 밀착된 형태의 교복을 선호하는 추세가 치수 선택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up>2)</sup>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 7) 치수 선택시 고려하는 부위

치수 선택시 고려하는 부위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상의(블라우스)와 하의(스커트) 모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치수 선택시 고려하는 부위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p<.001$ ).

블라우스 치수 선택에서 여중생은 품 45.9%,

<표 7> 블라우스 및 스커트 치수 선택시 고려하는 부위

상하의	부위	중학생	고등학생	계	N(%)
블라우스	목둘레	4( 0.9)	3( 1.0)	7( 0.9)	29.172 ***
	어깨너비	84( 18.5)	58( 18.6)	142( 18.6)	
	폼	208( 45.9)	194( 62.4)	402( 52.6)	
	옷길이	42( 9.3)	17( 5.5)	59( 7.7)	
	소매길이	74( 16.3)	21( 6.8)	95( 12.4)	
	소매통	17( 3.8)	8( 2.6)	25( 3.3)	
	기타	24( 5.3)	10( 3.2)	34( 4.5)	
	전체	453(100.0)	311(100.0)	764(100.0)	
스커트	허리둘레	268( 59.2)	174( 55.9)	442( 57.9)	29.207 ***
	엉덩이둘레	36( 7.9)	63( 20.3)	99( 13.0)	
	배둘레	33( 7.3)	19( 6.1)	52( 6.8)	
	옷길이	90( 19.9)	47( 15.1)	137( 17.9)	
	폭	17( 3.8)	4( 1.3)	21( 2.7)	
	기타	9( 2.0)	4( 1.3)	13( 1.7)	
	전체	453(100.0)	311(100.0)	764(100.0)	

\*\*\* p<.001

어깨너비 18.5%, 소매길이 16.3% 순으로 고려하는 반면, 여고생은 폼 62.4%, 어깨너비 18.6%, 소매길이 6.8%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순위에서는 동일하나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양 집단 모두 비율이 낮았다.

스커트 치수 선택에서 여중생은 허리둘레 59.2%, 옷길이 19.9%, 엉덩이둘레 7.9%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고생은 허리둘레 55.9%, 엉덩이둘레 20.3%, 옷길이 15.1% 순으로 나타나 여중생의 중요 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의 경우에는 키의 성장보다 가슴이나 엉덩이의 치수가 발달하는 체형의 특성으로 치수 선택시 옷의 길이보다 둘레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교복에 대한 만족도

여중생과 여고생의 교복 만족도를 5점 척도

(1:그렇지 않다-5:그렇다)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여중생과 여고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심리적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미적 측면, 경제적 측면, 관리적 측면, 신분상징적 측면, 동작적합성, 신체적합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교복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히 심미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심미적 측면의 만족도를 측정할 세 가지 문항 모두에서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측면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두 문항에서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8&gt; 교복 만족도 하위 요인

		M(SD)		
내용		중학생	고등학생	t값
심미적 측면	교복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2.32(0.99)	2.79(0.97)	-6.565***
	교복의 색상이 마음에 든다.	2.47(0.98)	2.73(0.99)	-3.609***
	디자인이 유행에 맞고 청소년 감각에 맞다.	1.97(0.88)	2.36(0.97)	-5.622***
경제적 측면	교복의 가격이 저렴하다.	2.01(0.78)	1.75(0.79)	4.574***
	여러 번 세탁해도 옷 모양의 변형이 적다.	3.07(0.88)	3.05(0.86)	0.284
	오랫동안 입어도 손상이 적다.	2.77(0.88)	2.73(0.90)	0.700
관리적 측면	쉽게 때가 타지 않는다.	2.21(0.88)	2.15(0.83)	0.991
	구김이 잘 가지 않는다.	2.34(0.93)	2.27(0.86)	1.061
	세탁과 손질이 쉽다.	2.62(0.93)	2.74(0.87)	-1.774
신분상징적 측면	교복을 입으면 소속감이 생긴다.	3.05(0.96)	3.05(0.98)	-0.38
	학생신분에 알맞고 단정해 보인다.	3.14(0.94)	3.07(0.96)	1.105
	교복 착용시 교칙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2.52(1.00)	2.47(0.92)	0.615
심리적 측면	빈부의 격차가 나지 않아 좋다.	3.07(0.92)	3.33(0.89)	-3.853***
	옷에 신경이 덜 쓰이므로 학습효과가 높다.	2.90(1.11)	3.16(1.08)	-3.249**
	아침마다 옷을 선택하는 고민이 적다.	3.91(0.99)	3.97(0.89)	-0.750
동작 적합성	책상에 앉아 학습할 때 편하다.	2.37(1.02)	2.13(0.95)	3.285**
	팔을 위로 올릴 때 불편함이 없다.	2.05(0.97)	2.05(1.01)	0.051
	계단, 버스 오르내리는 동작이 편하다.	2.48(1.01)	2.46(1.03)	0.358
신체 적합성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2.36(0.90)	2.25(0.89)	1.799
	착의시 피로감을 주지 않는다.	2.58(0.95)	2.43(0.94)	2.218*
	교복이 나의 신체와 잘 맞는다.	2.57(0.97)	2.51(0.95)	0.807

\*  $p < .05$ , \*\*  $p < .05$ , \*\*\*  $p < .001$ 

### 3. 교복 변형 실태 및 변형 후 만족도

교복 변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1벌 당 변형 회수, 변형 이유, 변형 방법, 1회 변형 소요 경비, 변형 부위, 변형 형태 및 변형 후 만족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 1) 교복 1벌 당 변형 회수

교복 변형 경험 비율 및 상하의 1벌 당 변형 회수를 나타낸 결과는 <표 9>와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교복 변형 경험 비율 및 변형 회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여중생의 경우는 54.3%가 교복 변형 경험이 있고, 1회 변형(27.4%)이 가장 높는데 비해서, 여고생의 경우에는 교복 변형 경험이 55.9%이며, 2회 변형(23.8%)이 가장 높았다. 여고생이 여중생에 비해 교복 1벌당 변형 회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교복 1벌 당 변형 회수

				N(%)
회수	중학생	고등학생	계	$\chi^2$ 13.729*
0회	207( 45.7)	137( 44.1)	344( 45.0)	
1회	124( 27.4)	70( 22.5)	194( 25.4)	
2회	78( 17.2)	74( 23.8)	152( 19.9)	
3회	32( 7.1)	28( 9.0)	60( 7.9)	
4회	10( 2.2)	0( 0.0)	10( 1.3)	
5회 이상	2( 0.4)	2( 0.6)	4( 0.5)	
계	453(100.0)	311(100.0)	764(100.0)	

\* $p<.05$

2) 교복 변형의 주된 이유

학생들이 교복 변형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표 10>과 같다. 교복 변형의 주된 이유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1$ ).

여중생의 경우에는 맞음새가 5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행동조, 활동성, 개성표출의 순인데 비해서, 여고생은 맞음새가 41.4%로 가장 높고 개성표출, 유행동조, 활동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중생의 경우에는 개성표출이 가장 낮은 반면에 여고생의 경우에는 활동성이 가장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급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여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교복 변형 방법

교복 변형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교복 변형 방법에 있어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5$ ). 교복 변형 방법은 여중생의 경우에는 구입처에 서비스 의뢰가 48.4%로 가장 높고, 수선전문점에 의뢰(31.3%), 세탁소 의뢰(9.8%), 본인이 직접 함(5.3%), 가족에게 의뢰(4.5%), 맞춤의상실에 의뢰(0.8%)의 순이며, 여고생의 경우에는 수선전문점에 의뢰가 44.8%로 가장 높고, 구입처에 서비스 의뢰(36.8%), 세탁소 의뢰(12.6%), 본인이 직접 함(3.4%), 가족에게 의뢰(1.1%) 및 맞춤의상실에 의뢰(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sup>5)</sup>에서 여중생은 교복 구입대리점에서 수선하고, 여고생은 전문 수선점에 의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여고생의 경우에는 유행과 개성 표

<표 10> 교복 변형 이유

				N(%)
이유	중학생	고등학생	계	$\chi^2$ 44.940***
몸에 잘 맞지 않아서 (맞음새)	136( 55.3)	72( 41.4)	208( 49.5)	
교복 유행형태에 맞게 고침 (유행동조)	48( 19.5)	34( 19.5)	82( 19.5)	
활동이 불편하므로 고침 (활동성)	31( 12.6)	10( 5.7)	41( 9.8)	
본인 스타일 연출을 위해 (개성표출)	23( 9.3)	58( 33.3)	81( 19.3)	
기 타	8( 3.3)	0( 0.0)	8( 1.9)	
계	246(100.0)	174(100.0)	420(100.0)	

\*\*\* $p<.001$

&lt;표 11&gt; 교복 변형 방법

항목				N(%)
	중학생	고등학생	계	$\chi^2$
본인이 직접 함	13( 5.3)	6( 3.4)	19( 4.5)	13.487*
어머니등 가족이 해줌	11( 4.5)	2( 1.1)	13( 3.1)	
구입처에 서비스를 요청함	119( 48.4)	64( 36.8)	183( 43.6)	
세탁소에 의뢰함	24( 9.8)	22( 12.6)	46( 11.0)	
수선전문점에 의뢰함	77( 31.3)	78( 44.8)	155( 36.9)	
맞춤의상실에 의뢰함	2( 0.8)	2( 1.1)	4( 1.0)	
계	246(100.0)	174(100.0)	420(100.0)	

\*  $p < .05$ 

출을 위해 변형하는 비율이 높아서 구입처의 서비스보다는 수선전문점에 의뢰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4) 교복 변형시 소요 경비

교복 1회 변형시 드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여중생의 경우 무료가 49.6%로 가장 높고, 2,000~5,000원, 5,000~10,000원, 2,000원 이하, 10,000원 이상의 순이었고, 여고생의 경우에는 2,000~5,000원이 32.8%로 가장 높고, 무료가 32.2%로 그 다음이며, 5,000~10,000원이 28.2%로 여중생보다 월등히 높으며, 10,000원 이상도 5.2%로 여중생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서 여고생들이 교복 1회 변형시의 소요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여고생의 교복 변형 비용이 높은

것은 변형 방법에서 수선전문점에 의뢰하거나 세탁소에 의뢰하는 경우의 응답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학생의 42.4%가 변형시 무료로 한다고 응답한 것은 별도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는 구입처의 서비스에 변형을 의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 5) 교복 변형 부위, 변형 형태 및 변형 후 만족도

##### (1) 교복 상의(블라우스) 변형 부위 및 변형 형태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420명 중에서 블라우스 변형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277명(66.0%)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에게 블라우스의 변형 부위 및 변형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여중생과 여고생 모두 허리둘레, 블라우스길이, 가슴둘레, 소매길이, 칼라형태, 목둘레 순으

&lt;표 12&gt; 교복 1회 변형시 소요 경비

항목				N(%)
	중학생	고등학생	계	$\chi^2$
무료	122( 49.6)	56( 32.2)	178( 42.4)	23.680***
2,000원 이하	14( 5.7)	3( 1.7)	17( 4.0)	
2,000~5,000원	68( 27.6)	57( 32.8)	125( 29.8)	
5,000~10,000원	34( 13.8)	49( 28.2)	83( 19.8)	
10,000원 이상	8( 3.3)	9( 5.2)	17( 4.0)	
계	246(100.0)	174(100.0)	420(100.0)	

\*\*\*  $p < .001$

<표 13> 블라우스 변형 부위 및 변형 형태

변형 부위 및 형태		중학생	고등학생	계	N(%)
칼라형태	늘임	6( 4.0)	2( 1.6)	8( 2.9)	2.196
	그대로 둠	141(94.0)	124(97.6)	265(95.7)	
	줄임	3( 2.0)	1( 0.8)	4( 1.4)	
목둘레	늘임	5( 3.3)	1( 0.8)	6( 2.2)	3.858
	그대로 둠	143(95.3)	126(99.2)	269(97.1)	
	줄임	2( 1.3)	0( 0.0)	2( 0.7)	
가슴둘레	늘임	7( 4.7)	5( 3.9)	12( 4.3)	11.944**
	그대로 둠	100(66.7)	60(47.2)	160(57.8)	
	줄임	43(28.7)	62(48.8)	105(37.9)	
허리둘레	늘임	14( 9.3)	2( 1.6)	16( 5.8)	8.240*
	그대로 둠	51(34.0)	41(32.3)	92(33.2)	
	줄임	85(56.7)	84(66.1)	169(61.0)	
블라우스길이	늘임	8( 5.3)	7( 5.5)	15( 5.4)	9.192**
	그대로 둠	87(58.0)	51(40.2)	138(49.8)	
	줄임	55(36.7)	69(54.3)	124(44.8)	
소매길이	늘임	13( 8.7)	4( 3.1)	17( 6.1)	13.637***
	그대로 둠	108(72.0)	114(89.8)	222(80.1)	
	줄임	29(19.3)	9( 7.1)	38(13.7)	

\*  $p < .05$ , \*\*  $p < .05$ , \*\*\*  $p < .001$

로 변형의 빈도가 높았으며, 늘임의 경향보다는 줄임의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슴둘레, 허리둘레, 블라우스길이, 소매길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변형 형태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매길이를 제외하고는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줄임의 경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sup>2,4)</sup>에서 수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늘리기 위한 수선보다는 줄이기 위한 수선이 대부분이었다는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교복 하의(스커트) 변형 부위 및 변형 형태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420명 중에서 스커트 변형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375명(89.3%)으로 블라우스 변형 277명(66.0%)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스커트 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에게 스커트의 변형 부위 및 변형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여중생은 스커트길이, 허리둘레, 스커트주름, 스커트밑단폭, 배둘레, 엉덩이둘레 순으로 변형율이 높았으며, 여고생은 스커트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 스커트밑단폭, 스커트주름 순으로 변형율이 높았다. 모든 변형 부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변형 형태에 대한 응답 비율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여중생의 스커트길이, 스커트밑단폭, 스커트주름 부위에서는 늘임이 큰 경향을 나타내었고, 허리둘레, 배둘레 부위에서는 줄임이 큰 경향을 보였다.

여고생은 스커트길이의 변형에서 늘임이 줄임보다 큰 경향을 보였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에서는 줄임의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스커트의 길이를 늘이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를 줄이는 경향은 유행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되었다.

&lt;표 14&gt; 스커트 변형 부위 및 변형 형태

변형 부위 및 형태		중학생	고등학생	계	N(%)
허리둘레	늘임	31(13.8)	10( 6.6)	41(10.9)	6.211*
	그대로 둠	111(49.6)	72(47.7)	183(48.8)	
	줄임	82(36.6)	69(45.7)	151(40.3)	
엉덩이둘레	늘림	19( 8.5)	14( 9.3)	33( 8.8)	24.911***
	그대로 둠	191(85.3)	101(66.9)	292(77.9)	
	줄임	14( 6.3)	36(23.8)	50(13.3)	
배둘레	늘임	18( 8.0)	3( 2.0)	21( 5.6)	17.089***
	그대로 둠	184(82.1)	113(74.8)	297(79.2)	
	줄임	22( 9.8)	35(23.2)	57(15.2)	
스커트길이	늘임	135(60.3)	87(57.6)	222(59.2)	8.421*
	그대로 둠	62(27.7)	30(19.9)	92(24.5)	
	줄임	27(12.1)	34(22.5)	61(16.3)	
스커트밑단폭	늘임	47(21.0)	15( 9.9)	62(16.5)	10.319**
	그대로 둠	167(74.6)	133(88.1)	300(80.0)	
	줄임	10( 4.5)	3( 2.0)	13( 3.5)	
스커트주름	늘임	51(22.8)	15( 9.9)	66(17.6)	16.414***
	그대로 둠	160(71.4)	164(88.7)	294(78.4)	
	줄임	13( 5.8)	2( 1.3)	15( 4.0)	

\*  $p < .05$ , \*\*  $p < .05$ , \*\*\*  $p < .001$ 

스커트길이에서의 변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sup>6)</sup>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에서 줄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sup>7)</sup>의 교복 전체의 실루엣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인체선이 부각되는 실루엣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교복 변형 후 만족도

중·고등학생의 교복 변형 후 만족도를 5점

척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로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라우스 변형 후 만족도보다는 스커트 변형 후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교복 변형 후 만족도 차이는 블라우스와 스커트 모두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

&lt;표 15&gt; 교복 변형 후 만족도

항목	중학생	고등학생	계	M(SD)
블라우스	3.17(0.88)	3.17(0.89)	3.16(0.88)	-0.061
스커트	3.23(0.86)	3.38(0.75)	3.29(0.82)	-1.750

4. 교복 변형에 대한 견해

청소년들의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와 개성표출에 대한 욕구가 교복 변형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교복 변형 행동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764명에게 교복 변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복 상의길이를 허리선까지 짧게 변형하는 경우와 교복 하의의 폭을 신체에 밀착되게 변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1:바람직하지 않다-5:매우 바람직하다)를 이용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항목 모두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3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항목 모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응답 평균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교복 변형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과 교복 변형 경험이 1회 이상인 집단 간에는 두 항목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17). 변형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두 항목 모두에

서 교복 변형을 보다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의생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교복의 올바른 착용에 대한 교육 경험을 5점 척도(1:매우 적다-5:매우 많다)로 알아본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중생의 평균값은 2.38이었고 여고생의 평균값은 2.29로 교육의 기회는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복의 올바른 착용 등 의생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5점 척도(1:전혀 필요없다-5:매우 필요하다)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이 3.21로 나타나서 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교복의 올바른 착용 등 의생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규제에 앞서 올바른 교복 착용 및 의생활에 대한 교육이 먼저 실시되어야

<표 16> 교복 변형에 대한 견해

항목	M(SD)			
	중학생	고등학생	계	t값
교복상의 길이를 허리선까지 짧게 변형	2.28(1.04)	2.88(0.93)	2.88(0.99)	-0.121
교복 하의의 폭을 신체에 밀착되게 변형	2.50(0.94)	2.51(0.90)	2.51(0.93)	-0.099

<표 17> 변형 유무에 따른 교복 변형에 대한 견해

항목	M(SD)			
	변형유집단	변형무집단	계	t값
교복상의 길이를 허리선까지 짧게 변형	3.14(1.00)	2.56(0.89)	2.88(0.99)	-8.401***
교복 하의의 폭을 신체에 밀착되게 변형	2.66(0.98)	2.32(0.82)	2.51(0.92)	-5.147***

\*\*\* $p < .001$

<표 18> 교복 착용에 대한 교육 경험 및 필요성

항목	M(SD)			
	중학생	고등학생	계	t값
교복의 올바른 착용에 대한 교육 경험	2.38(0.97)	2.29(1.01)	2.35(0.99)	-0.121
교복의 올바른 착용 등 의생활 교육의 필요성	3.20(0.98)	3.21(0.89)	3.21(0.95)	-0.099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IV. 결 론

### 1. 교복 착의 실태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 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복 보유량은 블라우스 2벌, 스커트 1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복 보유량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교복 구입 형태에 있어서 전체 학생의 70.7%가 브랜드 대리점에서 개별 구입에 응답하였고, 26.6%가 교복 전문점에서 개별 구입에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브랜드 교복을 구입함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공동구매나 물려받기는 낮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교복 구입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 본인, 친구나 선배 순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본인, 부모님, 친구나 선배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 구입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착용시 맞춤새가 7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이미지, 가격 순이었다. 교복 구입시 소요 비용은 전체의 72.1%가 20만원 이하를 지불하였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구입시 치수 선택 기준은 전체 응답자의 47.4%가 신체크기와 같게 교복을 선택하였고, 43.8%는 한 치수 크게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체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된 고등학생은 신체크기와 같게 교복을 구입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생은 신체 성장을 고려하여 한 치수 크게 구입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복 블라우스 치수 선택시 고려하는 부위는 전체 학생의 52.6%가 품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 어깨너비, 소매길이, 블라우스길이, 소매통, 목둘레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복 스커트의 치수 선택시에는 허리둘레, 스커트길이, 엉덩이둘레, 배둘레 부위의 순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 2. 교복에 대한 만족도

교복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

생 모두 심리적 측면에서 아침마다 옷을 선택하는 고민이 적다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학생은 아침마다 옷을 선택하는 고민이 적다, 학생신분에 알맞고 단정해 보인다, 빈부의 격차가 나지 않아 좋다는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이 유행에 맞고 청소년 감각에 맞다는 문항에서는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아침마다 옷을 선택하는 고민이 적다, 빈부의 격차가 나지 않아 좋다, 옷에 신경을 덜 쓰므로 학습효과가 높다는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복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문항에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복 구입시 중학생보다 저렴한 교복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중학생보다는 경제개념이 분명하고, 사회적으로 교복 가격에 대한 거품 논란 등 가격에 대한 이해 또는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심리적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심미적 측면, 경제적 측면, 관리적 측면, 신분상징적 측면, 동작적합성, 신체 적합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교복 변형 실태 및 변형 후 만족도

교복 변형 실태 및 변형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764명의 학생 중 교복 변형의 경험이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과반수가 넘는 420명(55.0%)이었는데, 그 중 여중생은 246명(58.6%)이었고 여고생은 174명(41.4%)이었다. 교복 1벌 당 변형 회수에서 여중생은 1회 변형 응답이 많았고, 여고생은 2회 변형이 가장 많았다. 교복 변형의 주된 이유로서 여중생은 맞춤새, 유행동조, 활동성, 개성표출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고생은 맞춤새, 개성표출, 유행동조, 활동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급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여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교복 상의 변형 부위 및 변형 사항에서는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가슴둘레, 허리둘레, 블라우

스 길이 항목에서 줄임의 경향이 컸으며, 교복 하의 변형 부위 및 변형 사항에서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에서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줄임의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늘임보다 줄임의 비율이 큰 이유는 학생들이 교복을 몸에 밀착되게 입으려는 경향이 뚜렷하여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실루엣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활동성보다는 개성표출과 유행동조의 비율이 더 높은 고등학생 집단이 블라우스를 몸에 더 밀착시켜 입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교복 변형 후 만족도는 여중생, 여고생 모두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교복 변형을 의뢰하는 장소로 여중생은 구입처에 서비스를 요청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고생은 수선전문점에 의뢰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복 변형의 이유가 유행과 개성 표출에 높은 비율을 보였던 고등학생이 구입처에 서비스를 요청하기 보다는 수선전문점에 의뢰하여 만족스러운 변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 4. 교복 변형에 대한 견해

교복 변형에 대한 견해에서 교복 변형을 한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교복 변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교복 변형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교복 변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올바른 교복 착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비교적 적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교복의 올바른 착용 및 의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규제에 앞서 올바른 교복 착용 및 의생활에 대한 교육이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구 지역 여자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 착용 및 교복 변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형 분석에 기초한 기능적 교복 개발에 관한 연구와 교복 변형 부위별 치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치수 체계 개선에 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혜정 (2001).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3-44.
- 2) 김덕하 (2000). 성장률을 고려한 여중생 교복 맞춤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양진 외 (1999). 고등학교 교복의 착의만족도 및 착의실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32), pp.5-6.
- 4) 김세희 (2003). 여고생의 교복행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1-24.
- 5) 이지민 (2007).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 실태와 만족도 비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4-66.
- 6) 고애란, 김양진, 심정은 (1999). 여고생의 교복 관련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연구.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3, p.40.
- 7) 박영애 (1997).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3.
- 8) 김순심, 유은희, 이유경, 이은숙 (1990). *복식 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p.79.
- 9) 정연석 (1988). *신청년 심리학*. 서울: 법문사, p.48.
- 10) Garrison, K. C. (1951).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Prentice-Hall.
- 11) Hurlock, E. B. (1949).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12)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